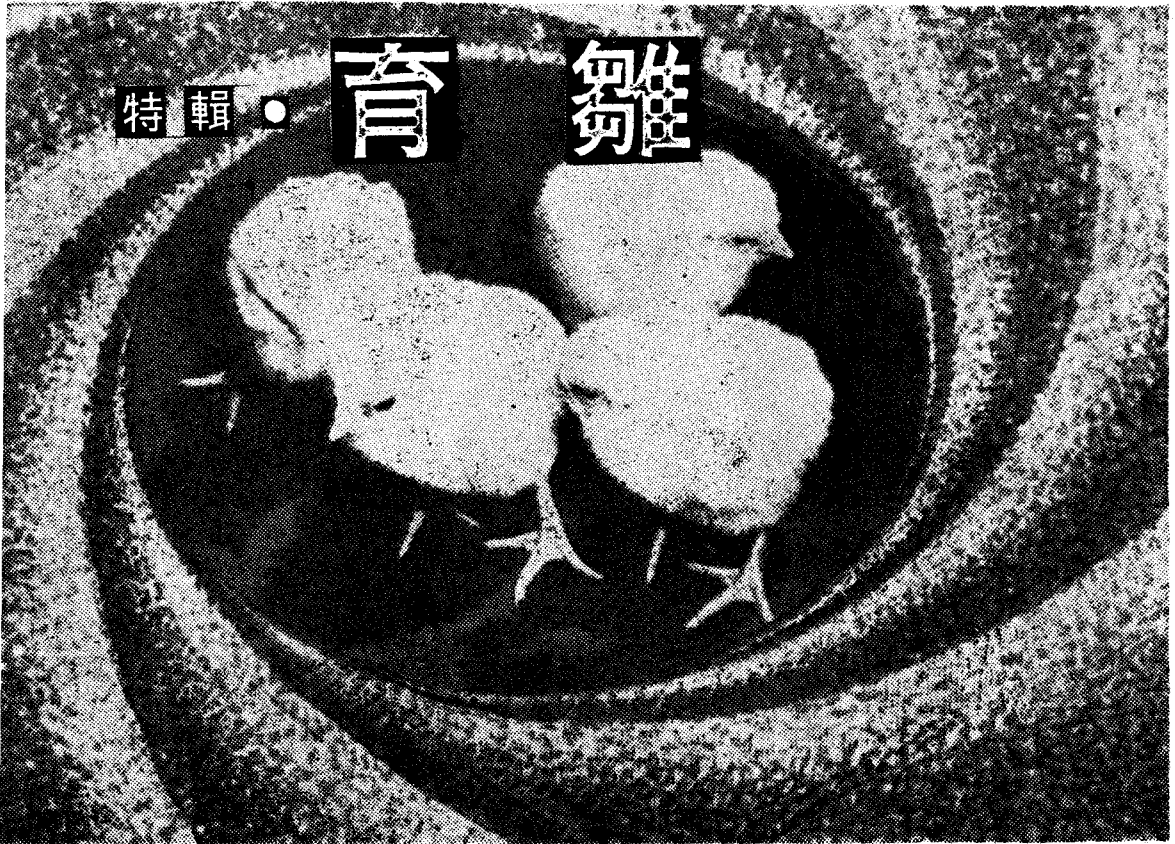


育 雛



◇ 평사육추와 케이지육추의 비교

.....<박 상 문>

◇ 채란계 육성비의 산출

.....<이 승 규>

◇ 육성 중의 특수관리

.....<윤 석 구>

◇ 육추시 영양과 사료

.....<한 인 규>

◆ B·C 1400년 인간이 닭(*Galus domesticus*)을 기르기 시작하면서부터 닭을 기르는 작업 중 가장 힘이 드는 것은 육추라 일컬어 왔다.

『병아리에 성공하면 양계에 성공한다』는 격언이 단적으로 표현하드시 양계에 있어서 육추는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양계가들은 가끔 육추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않고 지나쳐 버린다. 육추는 양계의 과정 중에서 꼭 한번은 거쳐야 할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무심히 지나쳐 버리기 쉬운 것이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매일 공기를 호흡하면서도 공기가 없으면 살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다. 여기서 약간 다른 각도에서의 육추문제를 특집으로 실어 보았다. 성공하는 양계가가 되기 위하여 육추의 어려움과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하겠다.

되도록 쌓아 올린 다단식의 빠다리육추기, 또는 케이지육추기가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입체식인 이 육추기는 적은 면적에 많은 수를 수용할 수 있고 관리하기에 편하여 시간과 노력이 절약되며, 똥이 밑으로 떨어져 위생적이며 병아리의 관찰이 용이한 잇점이 있는 반면, 좋은 곳에서 많은 병아리를 기르게 되어 밀사할 염려가 있고 서로 털을 쪼는 성질이 생기며 환기에 특별한 주의와 전열식이 아니면 아래는 냉기가 있고 위는 너무 더워지기 쉬운 결점이 있다. 또한 육추기를 만드는 데 한번에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하며 고장이 났을 때는 철물케이지이면 자기가 스스로 고치지 못한다는 것도 염두에 둘 것이다.

입체식 육추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병아리가 커짐에 따라 기르는 장소를 넓일 수 없어 중추용, 대추용으로 병아리를 이동하여야 하며, 이때의 스트레스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중추기에 충분한 운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일광욕의 불충분 및 미량사료의 증급과 부식토 및 세사의 급여가 불가결하다.

최근 케이지육추기로 육성한 닭은 비교적 연약하고 장기간의 산란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중론으로 되어 있다. 질병 발생에 대하여는 케이지식은 위생적이며 질병이 적고 조기발견이 가능하며 격리 도태가 용이하고 소독이 용이하다는 것은 상술한 바 있으나, 공기전염에 의한 질병은 오히려 케이지식이 많이 발생하며, 문제의 백혈병은 케이지식이 평사보다 월등히 피해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체가 되었을 때의 도태율은 평사보다 높으며 자연 경제수명이 짧아진다는 문제점이었다.

성장 속도에 있어서는 일본 가와우찌(天內) 종축장에서 시험한 바에 의하면 케이지육추가 빠다리육추나 평사육추보다 빠르나 별로 차는 없으며 사료효율과 노동력은 오히려 평사육추가 좋다는 발표가 있었으며, 다른 시험에서도 같은 예가 많이 있다. 일반적으로 평사의 육성율이 좋지 않다는 것은 군의 구성이 비교적 크고 흙 위에서 또 닭통 위에서 생활하는 만큼 비위생적이므로 병에 걸리기 쉬우며 생존경쟁으로 사고 병아리가 생길

기회가 많고 병아리의 강, 약차가 있을 것이라는 점은 인정되는 바이나, 첨가약품 개발은 어느 정도 이를 극복하는데 공헌하고 있으며 중·대추기에 방사로 육성하므로 충분한 운동에 의하여 품종 고유의 이상적 형태로 육성되며, 산란의 지속상태를 견지하여 경제 수명이 길다는 것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지가(地價)가 높은 도시 주변 전업양계가 이외의 농가양계에 있어서는 케이지육추기의 구축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 케이지육추를 고집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3. 케이지육추의 실제

케이지육추기는 병아리의 크기, 군(群)의 크기, 시설비, 관리의 난이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케이지의 크기는 초생추, 중추, 대추용으로 구분하여 시설할 것이다.

(1) 초생추용 : 부화 후 15~20일경부터 그 후 20일간 정도 수용하는 초생추용 케이지는 폭 90cm×45cm, 높이 25cm의 바스켓 4단 8칸이면 수용 당초는 한칸에 10~15수를 수용하여 총 100수 내외를 기를 수 있겠다. 지나치게 많은 수수를 수용하면 압사할 우려가 있고, 적으면 보온에 지장이 있으니 실은 유지에 힘써야 할 것이다. 바닥은 1.5cm×1.5cm의 철망으로 움직이지 않게 튼튼이 가설해야 할 것이며 측면격자는 사료 섭취, 음수에 지장이 없도록 세로로 대는 것이 좋고, 2층으로 4cm폭으로 하여, 2~4cm폭을 조절할 수 있으면 이상적이 되겠고 골격은 2cm×2cm×0.2cm의 앙글로 설치할 것이다.

(2) 중추용 : 40일령에서 70일령까지 수용되는 것으로 바스켓 크기 폭 90cm×60cm, 높이 40cm 세로격자 폭 4.5cm, 바닥망 2cm×2cm의 3단 6칸의 케이지에 칸당 10수정도 수용할 것이다. 특히 주의할 것은 바닥이 단단하여 병아리의 거동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다리가 약한 것이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며, 추울 때가 아니면 육추사의 창을 열어서 통풍이 잘되도록 힘쓸 것이다.

(3) 대추용 : 대강 70일령 이후 130일령까지 수

용되는 것으로 폭 180cm×90cm 높이 50cm×60cm, 2단 2칸으로 칸당 10수 수용하여 연약한 병아리가 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케이지 면적과 수용 수수간에는 육성율과 성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즉 일정 면적에 일정 수수를 수용하는 것과 일정 면적을 세분하여 일정 수수를 안배 수용하였을 때, 전자는 후자

보다 성장이 빨랐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은 행동면적이 넓으면 성장율이 빠르다는 것을 의미하여 바닥 면적과 수용 수수의 결정은 병아리의 성장 또는 성체가 되었을 때의 산란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는 좀 더 연구가 있어야 할 문제인 것으로 사려되어 반드시 상기한 케이지의 규격이 이상적이라고는 속단할 수 없는 형편이다.

人事말씀

時下 嚴冬雪寒에 貴體萬康 하옵시며 貴事業에 많은 繁榮이 있 아옵기를 祈願하옵나이다.

仰告之事는 弊社에서 多年間 貴下의 聲援下에 運營 하여오던 大韓飼料工業株式會社의 飼料部를 大韓製粉에 移讓하고 從前부터 取扱하여온 藥品 단을 取扱하게 됨에 따라 合般 會社의 業務 體制를 藥品으로 單一化하고 製品을 質과 量面에서 補強하고 施設을 加一層 擴張하여 奉仕하고자 하오니 倍前의 指導와 鞭撻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特히 從前의 藥品部를 大幅強化하여 獨立된 法人體인 大韓新藥工業株式會社로 創立 發足하여 製品의 商號도 大韓新藥工業株式會社로 變更케 되었아오니 弊社의 藥品 取扱에 있어서 此後 商標에 留意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弊社의 新發足에 즈음하여 일일히 進拜코 人事 들여야 道理 이 겠아오나 事情上 于先 書面을 通하여 人事를 代하오니 寬大히 諒察하여 주시기 仰望 하나이다.

끝으로 貴下의 健康과 貴業體의 繁榮을 眞心으로 祈願합니다.

西紀 一七九〇年 一月 五日

美部화이자株式會社
日本 三共 株式會社
스위스롯데株式會社
日本비타민株式會社

總代理店

大韓新藥工業株式會社

代表理事

金 弘 基

電話 (22) 三九一五, 三九六五番